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7.12~2017.7.18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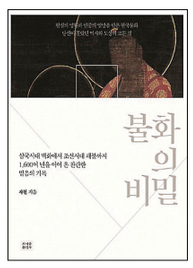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입문(2017년 개정판)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2	달라이라마의인생론	달라이라마	마음서재
3	불교란무엇인가(초심자가 던지는 질문)	이중표	불광출판사
4	스스로를달빛삼다	원철	휴(한겨레출판)
5	꽃도꽃피우기위해애를쓴다	정목	수오서재
6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7	원욱스님의나를바꾸는화엄경	원욱	민족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10	과학의불교	사사키시즈카/법장	모과나무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佛畵속에 담긴 스펙트럼 비밀 풀다

불화의 비밀

자현 스님 지음 | 조계종출판사 펴냄 | 3만원



한국의 불교문화를 이해하는데 '불화'만큼 중요한 성보가 또 있을까? 불교와 관련된 채색, 그리고 회화 작품을 아우르는 '불화'는 오랜 역사를 축적하며,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조성돼 왔다. 한국불화 초기 양식인 벽화, 경전에 삽입된 변상도, 사찰 곳곳에 걸린 존상화, 그리고 괘불도까지 불화의 미적 스펙트럼은 매우 다채롭다. 이 책은 그간 불교문화 관련 교양서를 출간하며 주목 받은 자현 스님의 '불교문화의 비밀', 그 세 번째 책이다. 앞서 출간된 〈사찰의 비밀〉〈스님의 비밀〉에 이은 세 번째 주제는 바로 '불화(佛畵)'.

이 책의 출간은 한국불화를 단독으로 다룬 단행본이 많지 않은 시점서 환영할 만하다. 특히 출가 수행자이자 불교학, 동양철학, 역사, 미술을 전공한 저자가 그간의 지식을 십분 발휘해 불화를 역사, 문화, 종교의 다각적 측면으로 바라본 점은 이 책의 매력 중 하나이다.

이 책은 불화의 역사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그래서 이 책의 서두엔 '최초의 불화'가 언급된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최초'라 할 수 있는 불화가 현존하지 않는 까닭에 관련 문헌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에 기대어 당시의 모습을 짐작할 수밖에 없다. 최초의 불화에 관한 기록은 〈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잡사〉에 수록된 기원정사 관련 기록이다. 저자는 이를 '모두 믿을 수 없지만' 석가모니불 당시의 내용으로 소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진 않다고 말한다. 그래서 최초의 불화로 짐작되는 사원 장엄화(莊嚴畵)에 관해 이 문헌의 기록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이후 불교가 인도로부터 중국을 거쳐 우리 땅에 전래되기까지 불화 양식의 변화 양상을 문화적 시각서 바라본다.

삼국서 조선까지, 불화가 지닌 역사적 맥락

이 책은 불교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전래된 삼국시대부터 고려·조선시대까지 각 시기 불화의 특징을 정리한다. 이로써 종교적 표현 방식인 불화가 각 시기의 역사적 사건과 사상에도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힌다. 결국 우리는 불화가 지닌 종교적 의미에서 더 나아가 역사적 의미에 대해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예천 용문사 〈팔상도〉〈수하 항마상도〉

한국불화 대표작 선정해 자세히 고찰

역사, 미술 등 저자의 전공 지식 발휘

"불화는 불교문화 알 수 있는 나침반"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의 불화 관련 유물은 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국내서 확인할 수 있는 유물은 많지 않다. 하지만 저자는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에 이르기까지 국내외에 현존한 유물을 모아 소개하고, 옛 기록들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초기불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이는 우리 역사 속에 불교가 어느 시점부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당시 일본에 미친 우리 승려들의 예술적 영향은 어떠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열쇠다.

△고려시대

고려시대 국교는 불교였다. 그래서 왕실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찬란한 불교문화의 꽃이 피어난 시기이다. 그러나 현존하는 고려불화의 채색화 160여 점 중 10여 점만 국내에 보존돼 있고, 20여 점은 미국과 유럽에,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 불화는 일본에 넘어가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고려 말 왜구의 침략 과정서 다수의 불화들이 약탈됐기 때문이다. 결국 고려 불교회화사는 '비운의 역사'나 다름없다. 고려불화는 당시 조성된 유물 가운데서도 명품이라 평가 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볼 수 있는 유물이 적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저자는 고려불화의 특징과 양상을 분석한 기본 걸음서 더 나아가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아미타불과 관련된 그림이 많은 점을 들며 약탈의 역사를 되짚는다. 한편 당시의 위대한 예술혼이 담겨 있는 고려불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다소 경직된 양식의 불화와 달리 자유롭고 여유롭다. 이러한 구도는 고려시대의 사고방식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조선시대

현존하는 대부분의 불화는 조선시대의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화라 하면 조선불화인 게 대부분이다. 조선불화의 특징은 경직된 구도와 여백 없이 꽉 들어찬 인물 구도에 있다. 이는 조선사회의 사상과 역사적 사건과도 깊은 연관을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유교의 영향'라 할 수 있다. 이는 고려시대에선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불화의 탄생을 가져 오는데, '감로도'와 '고승도' '조사도' 등이 그것이다. 이 책에서는 조선불화를 시기별·주제별로 분류하고, 불화에 투영된 당시의 사상과 역사적 사건을 밝힌다. 특히 조선불화를 살펴봄에 있어 당시 사회상과 맞닿은 조선불화만의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복잡하고도 단순한 불화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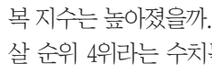
저자는 한국불화를 대표하는 아홉 개 카테고리 중 대표작을 선정해 불화 한 폭에 담긴 장면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 불화가 지닌 비밀을 밝혀내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 있다. 기존의 불화 관련 도서들은 한국 불교회화를 역사와 양식이라는 큰 시각서 바라보며 서술하거나, 감상의 차원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불화의 비밀〉서 시도되는 분석은 불화 안에 담긴 대부분의 장면을 부분 부분 세심히 바라보는 데에 있다. 특히 불교의 교리나 경전을 통해 특정 표현의 근거를 찾는 한편, 이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표현의 연원과 의미를 저 멀리 인도서부터 중국, 우리나라에 이르기까지 통사(通史)적 시각으로 분석했다. 이 책서 나타난 한국 불교회화사는 고대 인도인들의 사고방식, 인도와 중국의 신화와 엮이기도 하고, 도교·유교의 사상 등과도 연결된다. 이로써 독자는 한국 불화사와 표현 양식의 면면을 깊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이들 외에도 불화와 각 불화의 부분도를 포함해 350여 컷의 도판이 수록돼 있다. 가능한 한 많은 불화 도판을 수록함으로써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국내외 사찰과 박물관에 흩어진 불화를 보여준 것이 이 책의 또 다른 목적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각 시기의 대표적인 불화와 참고할 만한 유물의 도판을 다수 수록한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지면 위의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다.

김주일 기자

'面相' 보단 '心相' …갈고 닦은 마음 얼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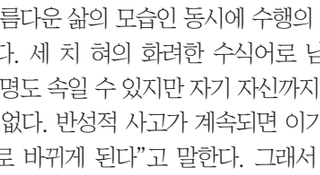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

원철스님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오래 묵을수록 좋은 것은 '읽을 만한 작가의 글'이라는 말이 있다. 좋은 글은 세월이 흘러도 두고두고 회자되는 것, 〈아름다운 인생은 얼굴에 남는다〉가 바로 그런 책이다. 구성과 소제목을 정리하고 이우일 작가의 그림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번 책에서도 원철 스님〈사진〉의 글은 여전히 우리를 솔깃하게 한다. 수행자에게 삶은 구도의 대상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누구보다 고심하는 것이 수행자의 의무이다. 원철 스님의 글은 치열한 자기성찰서 길어 올린 글이다. 후기에서 스님은 "마른 뼈다귀를 씹는 마음으로, 마른 수건을 짜듯 한줄 두 줄 써내려갔다"고 밝히고 있다. 수행자가 삶이란 날로 비우고 버리는 것이지만, 글쓰기는 날로 더하고 쌓아가는 것, 이러한 극과 극의 '비우기와 더하기' 사이에서 스님은 타협하고 갈등하며 꼭 담을 것만 글로 옮겼다. 아름다움, 비움, 지혜, 마음, 수행, 땀, 부, 무소유……에 대한 이야기들. 절제된 표현, 적절한 인용, 촌철살인 문장 등 담백한 문장 속에 녹아 있는 삶의 화두는 '지금의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묻도록 한다.

경제적으로 풍족해진 만큼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는 높아졌을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살 순위 4위라는 수치는 절망적이다.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는 묻는다. 삶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삶에서 추구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꿈꾸는 것들은 정말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믿음은 옳은가. 이런 의심에 대해 이 책은 답한다. 내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믿음을 의심해보라는 것. 어쩌면 극단의 사고일지 모른다는 것이다. 극단의 사고란 '절대적으로 믿는' 것이다. 의심 없는 믿음이다. 의심은 곧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 곧 중도中道이다. 중도는 이쪽과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다. '가운데도 줏대가 있어야 한다'는 스님의 말처럼 내가 가진 수많은 생각들을 의심하고 점검하며 나아가려는 자세가 바로 중도이다. 가령 휴가는 반드시 산이나 바다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서 나는 불행해지고 만다. 산이건 바다이건 방



구석에서건 언제 어디에서나 마음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은 중도적 지혜를 발휘하는 셈이 된다. 또 생일을 축하받아야 할 날이라고 생각하면 혼자 지내는 나는 가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본문 중에 생일에 대한 이런 글이 있다. "태어남이 제대로 의미를 가지기 위해선 태어났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이후 삶의 궤적을 얼마나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가느냐에 달려 있다." 생일을 앞으로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갈 다짐을 세우는 날이라고 기억한다면, 누군가의 축하 인사 정도는 필요치 않을 것이다. 이 책에는 이러한 중도의 지혜가 그득하다. 고정된 것을 의심하고 변화하려는 것이야말로 삶을 잘 살아가는 비결이다.

중도의 삶은 머물지 않고 새로워지는 데 있다. 인생의 의미 또한 어제보다 나은 삶을 사는 데 있다. 날마다 좋아지는 삶은 자기반성과 성찰로 이뤄진다. 스님은 "자기반성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인 동시에 수행의 한 방편이다. 세 치 혀의 화려한 수식어로 남이야 수백 명도 속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는 없다. 반성적 사고가 계속되면 이기심이 지혜로 바뀌게 된다"고 말한다. 그래서 스님은 날마다 참회문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 백팔배를 한다. 욕심을 차단하기 위해 다락방을 막아버리기도(물건을 쌓아두게 되므로) 한다. 이러한 반성적 습관은 곧 삶의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 성찰의 시간은 어디에 누적되는가. 사람의 얼굴은 하나의 풍경이라는 말이 있다. 살아온 세월이 얼굴에 담긴다. '면상(面相)'보다는 '심상(心相)'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지닌 이들의 얼굴은 누구나 한눈에 알아보는 법이다. 인생을 살면서 변해가는 얼굴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순간순간 인생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마음의 뜰을 비우고 가꾸고 길들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속에 아름다운 얼굴 하나 떠오른다. 결국 수행과 삶은 같은 말이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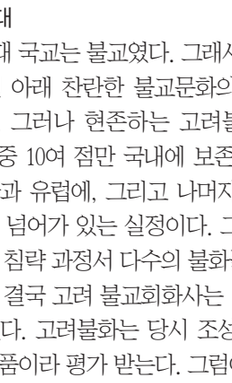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한국불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획기적 시도!

고쳐 풀이한

법성게

그 공능功能과 쓰임새



법성게의 게송 순서를 바꾸고,
한자를 재배치한 획기적 저서!

화엄의 사상을 210자로 농축한 〈법성게〉의 본뜻을 확연히 드러내는 새로운 접근!

학송 지음/신국판/무선/320쪽/15,000원

서양의 심리학과 붓다의 가르침은 양립할 수 있는가?

붓다와 프로이트

무아의 심리학



불교와 심리학의 융합을 위한 초석!

오래되고 중요한 과제인 의식과 무의식, 자아와 무아의 문제에 대한 불교와 서구심리학의 견해를 정리하였다.

마크 엡스타인 지음/윤희조·윤현주 옮김
국판/양장/336쪽/15,000원

미국불교

역사 및 주요 종파와 전통에 대한 성찰
BUDDHISM IN AMERICA

리처드 휴지스 시거 지음/장은화 옮김
신국판/590쪽/30,000원

활기차게 발전하고 있는
미국불교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미국 불교의 개략적인 역사, 주요 불교종파와 전통, 그리고 미국 불교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